

#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June 2014

## Family Travel Look

글루텐 프리가 뭐길래

2014 아트 바젤 홍콩 관람기

My Favorite Destinations



Sulwhasoo



전시 공간이 꽤 독특한 것 같다. 사바나 예술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내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다. 지금은 미술대학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 공간은 반환 전 홍콩에서 판사들이 쓰던 건물로 많은 재판이 열리던 장소다. 재판 실이나 철창이 있는 감옥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서양식 건축물과 컨템퍼러리한 건축 요소의 콘트라스트도 매우 아름답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과거와 현재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회적 통제와 사물의 양면성에 대해 다루는 내 작품과도 일맥상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투명한 엔진의 진열(Transparency Engine on Display)'이라 이름 붙은 이번 전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준다면, 공간을 구획하는 로프나 방패 모두 양면적인 특성을 가진다. 안쪽과 바깥쪽이 혼재하는 오브제로서, 이 양가적 의미를 분리할 수 없는 물건들이기도 하다. 이 물건들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관계'의 역할을 만들어낸다. 또한 투명한 소재는 환경을 생생하게 비추지만, 그 반영엔 왜곡도 끼어들게 마련이다. 나는 이 투명한 물체가 야기하는 '역설'에 관심이 있다. 로프를 분해하고, 방패의 손잡이를 떼서 보여주는 이번 전시에서의 '엔진'은 완전하지 않은 엔진이다. 공간이나 오브제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이것들의 관계망에 대한 실험이라 볼 수 있다.

'Plexus'는 지난번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분할 불가(Indivisible)'라는 작품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방패'라는 도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계기가 뭔가. 내 작품에 사용되는 오브제들은 모두 역할과 의미의 변화가 이뤄진다. 광주비엔날레 때 방패는 여러 개의 방패를 이어 붙여 마치 기왓장처럼 천장에 매달았다. 뮌헨을 방어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빌처럼 천장에 매달려 그 아래 설치된 오브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다. 반면 이번에 사용한 방패는 손잡이가 제거된 강화유리에 은도금을 한 것이다. 본래 유리라 은은 모두 유연한 액체로서의 성질을 지니는데, 이것들이 성분 변화를 일으켜 사물을 투영하게 되는 것이다. 각각의 방패들은 모두 다른 화학적 단계와 상태에 있다. 재료의 화학적 성질, 완벽한 형태에 대한 실험이다. 방패는 다소 폭력적인 이미지를 가졌지만, 이 방패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 무언가에 맞서는 도구를 연약하고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게 흥미로웠다.

## 제3의 관점, 마이클 주

재미교포 2세인 작가 마이클 주(Michael Joo)는 동양과 서양의 경계, 자연과 문명의 긴장처럼 상반된 개념을 다루며 세계의 본질을 추적해 들어간다. 홍콩 사바나 예술대학에서 열린 이번 개인전에서는 '분리'의 기능이 부여된 오브제 '방패'와 '공간 분리대'를 통해 제3의 입장을 이야기한다.

꼭 아름다움에 집중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 반대로 방패에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측면이 있다는 중의적인 측면도 담겨 있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가르키보다는 이런 하나의 사물에도 다양한 관계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생물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분해와 재조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게 꼭 전공 교육 때문인 것 같지는 않다. 나의 부모님은 195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교포인데 어머니는 북한, 아버지는 서울 출신이다. 두 분 다 과학자로 어머니는 식물학자, 아버지는 동물학자였다. 그러다 보니 두 분에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 같다. 나 역시 예술과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자랐지만, 실용적인 학문에 대한 관심이나 두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습성이 작품 활동을 하는 데 많이 반영됐을 것이다.

관객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길 바라나. 음, 누군가가 이 작품을 볼 때 물리적으로나 미적으로 새로운 것을 향한 입구로 들어왔다고 느끼면 좋겠다. 개인마다 경험치와 해석 능력은 다르겠지만, 유리 거울이라는 재료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한번쯤 들여다보게끔 하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 그게 바로 회화와 조각의 차이다. 이렇게 작품에 참여한 경험이 잔상으로 남고, 그게 어떤 생각을 가져다준다면 좋을 것 같다. **ㄸ**



실버와 유리로 만든 방패 'Plexus'(2013) 앞에 앉은 마이클 주.

